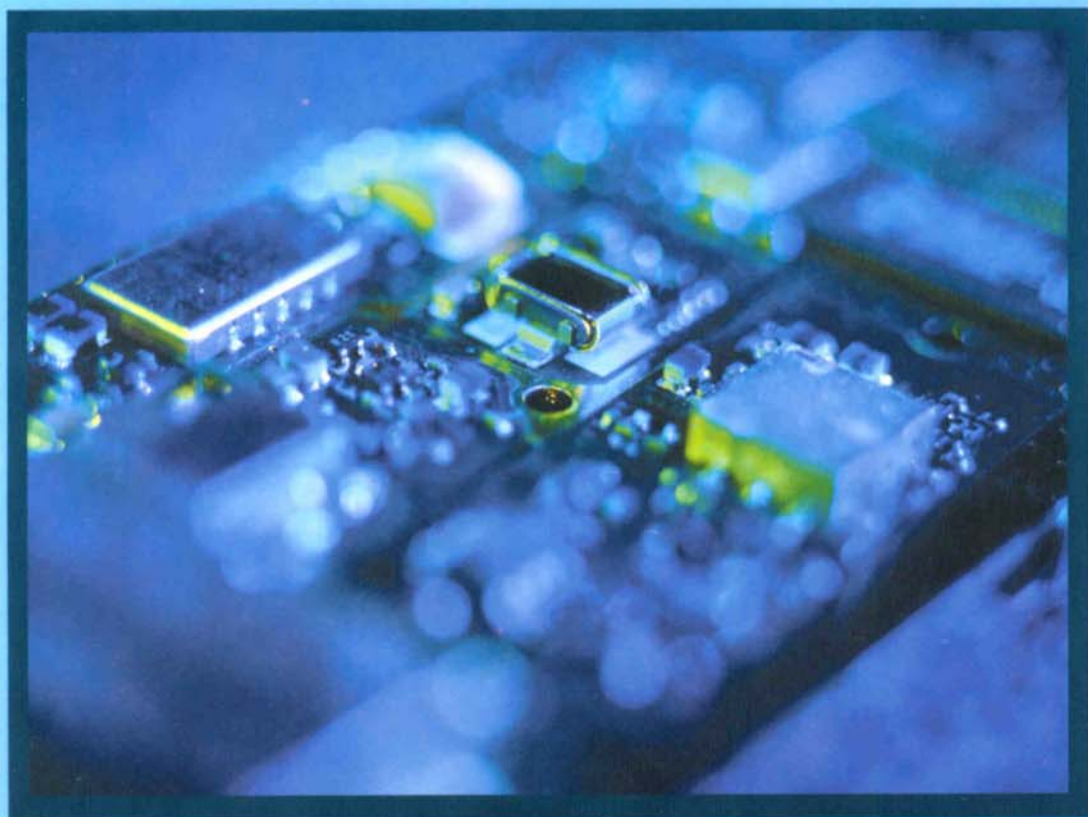


산업리뷰

2003년 1월 / 제14권 제1호 (통권 141호)



2003. **1**

CONTENTS

- 2 • **산학칼럼** / 대구시는 문화경쟁력이 있는가 5 • **경영·기술정보** / 방카슈랑스 중심의 종합금융서비스
8 • **이 달의 쟁점 I** / 대구경북 벤처기업 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10 • **이 달의 쟁점 II** / 벤처기업들의 연합
12 • **제152차 월례세미나** / 출항인사가 본 대구·경북의 발전방향 16 • **대덕단상** / 나 자신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18 • **연구원소식** 19 • **회원동정** 22 • **신착도서목록** 23 • **연구원 소개 및 회원가입 안내**



社団法人 産學經營技術研究院
UNIVERSITY-INDUSTRY RESEARCH INSTITUTE



대구시는 문화경쟁력이 있는가

김순재 | 매일신문 문화부장

대구는 누가 뭐래도 문화 도시다. 예술대학이 전국에서 제일 많고-물론 서울을 제외하고- 유명예술인들의 고향을 따져보면 대구나 경북지역이 대부분이다. 문인들만 봐도 이장희, 현진건, 이상화, 오일도, 백기만, 이육사, 이호우, 김동리, 박목월, 조지훈 등 우리 문단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모두 이 지역출신이다.

전국의 미술단체나 음악단체 등의 회장들도 이 지역 출신들이 많은만큼 이곳의 문화적인 토양과 전통은 탄탄하다. 그만큼 대구는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잘 돼 있는 도시라는 얘기다.

그런데 최근 대구 문화수준이 전국에서 하위를 차지한다는 문화관광부의 조사는 과연 대구의 문화가 있는가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풍부한 토양에서 문화수준이 최하위라는 조사결과는 대구의 문화전반에 대한 재점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광주에서 열리는 비엔날레는 단번에 광주를 예술의 도시로 만들었다. 부산의 국제영화제는 부산을 전세계의 영화인이 찾는 도시로 만들었지만 대구는 변변한 국제행사조차 없다. 그만큼 대구시의 문화경쟁력은 약화됐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올해 오페라하우스의 개관을 비롯, 전국에서 제일 큰 시립미술관과 조각공원 등 굵직굵직한 문화건물이 들어서거나 설 계획이다. 눈에 보이는 문화인프라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문화마인드다. 이러한 좋은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문화마인드가 필수적이다.

대구시가 타도시에 비해 문화경쟁력이 없는 이유는 바로 문화마인드가 뒤지기 때문이다. 공무원이나 사회지도층 예술인 시민 모두 옛날 화려한 시절만 타령할 뿐 시대에 맞는 문화마인드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지난 문화감시장장은 문화시장임을 자처하면서 도시의 문화가꾸기에 직접 나섰다. 오페라하우스, 야외공연장, 대구시립미술관 등 인프라 구축에 힘쓴 것도 사실이다.

현 조해녕 시장도 시장이 되기 전 공약에서 문화시장을 자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조시장은 유교 학술향애에만 관심을 쏟고 있을 뿐 시민들이 다 함께 즐기고 볼 수 있는 공

대구에도 국제문화행사로 '오페라 축제'를 열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시민들도 오페라축제를 열 경우 70% 이상 성공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같은 여론에 '예산'을 들먹이며 주저하고 있다. 조해녕 시장도 '해 보자'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시의 열의와 관심은 적극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예술인들의 생각이다. 사실 대구의 오페라 역사는 전국 최고다. 현재 활동하는 오페라단만 해도 7~8개에 이른다. 시립오페라단을 갖고 있는 도시도 지방에서는 전무하다. 이런 유리한 환경에서 오페라하우스 개관에 맞춰 오페라 축제를 벌인다면 오히려 늦은감이 있지만 대구에 가장 적합한 국제적인 행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예분야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화마인드는 있는데 시대에 맞는 문화마인드가 아니라는 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한 도시의 문화경쟁력을 언급할 때 단체장의 문화마인드를 반드시 거론하게 되는 것은 단체장의 문화마인드가 그 도시의 문화경쟁력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남의 작은 도시 통영을 예로 들어 보자. 통영에서 열리는 통영국제음악제는 올해 3회를 맞고 있지만 명실상부한 세계음악제로 자리잡았다. 윤이상이라는 음악인을 키운 고향이라는 독특한 메리트가 있지만 인구 13만의 작은 도시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전세계적인 오케스트라를 초청하는 행사를 마련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작은 도시에서 이같은 국제적인 음악회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윤이상을 아끼는 문화인들의 노력도 작용했겠지만 통영시장의 문화마인드가 있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 지나칠까. 통영시장은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문학을 사랑하며 문화를 즐기고 생활화 하고 있는 시장이다. 수 십억을 들여 국제음악제를 마련한 것도 바로 문화에 대한 열정과 사랑 그리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돈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이같은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화에 대한 열정과 확신만이 이런 행사를 열 수 있다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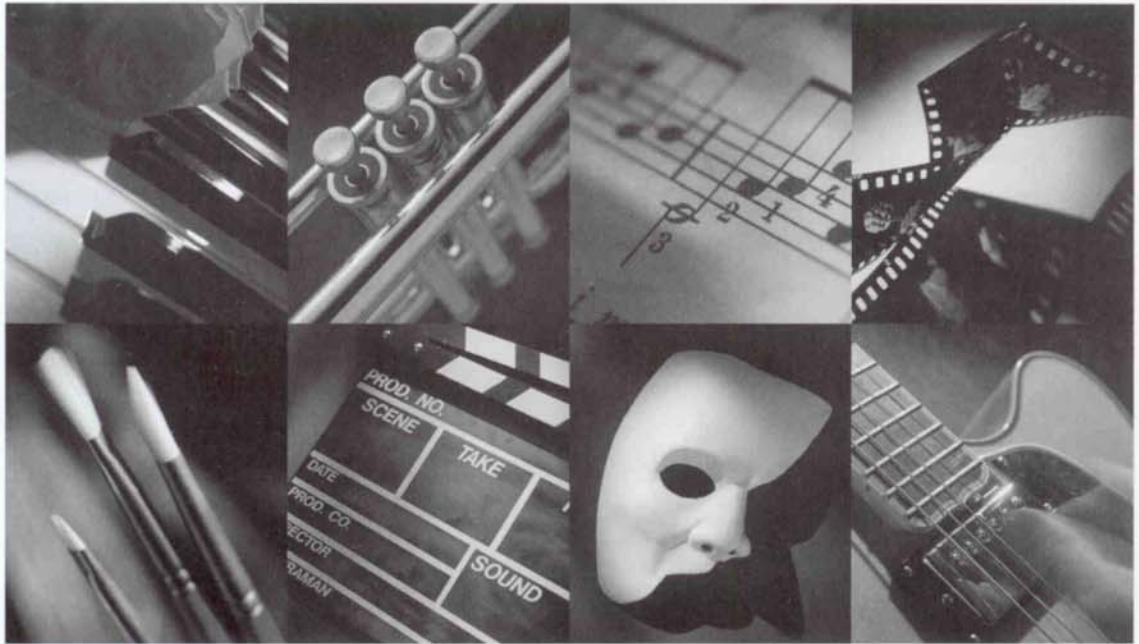
대구에도 국제문화행사로 '오페라 축제'를 열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시민들도 오페라축제를 열 경우 70% 이

상 성공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같은 여론에 '예산'을 들먹이며 주저하고 있다. 조해녕 시장도 '해 보자'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시의 열의와 관심은 적극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예술인들의 생각이다. 사실 대구의 오페라 역사는 전국 최고다. 현재 활동하는 오페라단만 해도 7~8개에 이른다. 시립오페라단을 갖고 있는 도시도 지방에서는 전무하다. 이런 유리한 환경에서 오페라하우스 개관에 맞춰 오페라 축제를 벌인다면 오히려 늦은감이 있지만 대구에 가장 적합한 국제적인 행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페라 축제는 다른 축제와 달리 대식구들을 초청해야 하고 무대장치에 시간이 걸리는 등 어려운 점도 많다. 그러나 그 불거리나 화려함에는 어떤 문화행사보다 단연 앞선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는 대구시의 입장과 달리 대구시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이 음악계의 시각이다.

대구는 지금 내세울 만한 간판급 문화행사 하나 없는 3등 도시로 전락했다. 대구의 올해 문화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44% 증액해 겨우 1%에 도달했다. 이 비율은 국가 전체 문화예산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인구가 비슷한 인천에 비해서도 114억 원이 적은 액수다.

이런 비문화적인 풍토는 지난달 문화관광부와 문화정책개발원의 전국 16개 시도 문화지수조사에서 광주와 달리 대구시는 하위권에 머무는 결과를 가져 왔다. 문제는 이처럼 초라해진 지역 문화예술의 현실을 뼈 아프게 자성



하는 목소리도 없다는 사실이다. 또 지역문화예술의 미래 지향적 아젠다를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려는 움직임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데 있다. 대구시 공무원이나 사회지도층, 예술인, 시민들의 문화마인드 모두가 총체적으로 뒤쳐져 있다.

공무원들은 예산만 들먹인다. 한 문화예술인은 “돈타령만 하다가 문화행사를 타도시에 다 빼앗기고 이제는 뒤늦게 할 행사가 없다는 것이 시 공무원의 자세”라고 질타한다. 예술인 위에 군림하려는 공무원들의 자세와 예산지원을 내세워 예술인들을 고개숙이게 만드는 현실에서는 문화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사회지도층 역시 다리건설이나 도로건설만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고 문화산업의 엄청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점도 문화경쟁력 없는 도시 만들기에 일조하고 있다.

문화예술인의 자세 또한 문제다. 단체의 경우 자발적으로 마련한 예산은 거의 없다. 거의 전부를 할 만큼 대구시와 도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이 ‘공무원 앞에 가면 작아지는 예술인’, ‘예술인 위에 군림하는 공무원’을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대구의 문화가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중구

청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예술진흥기획단’을 발족, 찾아가는 음악회나 동네 음악회를 만들어 대구문화수준을 끌어올리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고 있다. 관이 앞장서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화기획단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문화를 선사하겠다는 신선한 발상이다. 또 젊은이들의 모임인 ‘거리문화답사팀’은 대구의 문화지도를 만들고 잊혀진 대구의 역사를 탐험해 가면서 한 장 한 장씩 만들어가고 있다.

서부도서관은 최근 향토문학관을 개관하고 대구지역 대표작가들의 자료를 모아서 문학관을 만들었다. 지역 도서관에서 이같은 큰일을 벌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대구지역 문화의 장래를 밝게 한다. 또 이상화고택을 보존키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고택보존운동본부를 만들어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음악인들을 돕는 후원회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연극무대를 위한 소극장도 계획되고 있다는 소식은 문화의 봄이 다시 필 것 같은 확신을 주고 있다.

결국 대구문화의 발전은 문화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마음에서 출발한다. 거리의 의자하나에서 버스의 색갈에서 작게는 내집의 커튼에서도 문화를 키워 갈 수 있다. 문화경쟁력은 거창하지 않다. 문화 사랑이 그 시작이다. 🍀

방카슈랑스 중심의 종합금융서비스



김재봉 | 대구은행 금융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 금융 영역의 붕괴

최근 국내의 금융시장은 세계화(Globalization)의 진전, IT산업의 발달, 각국의 규제완화 등으로 대형화와 겸업화로 대두되는 급속한 금융 환경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형 은행간의 합병을 유도하며, 지주회사 방식의 금융겸업화를 허용하는 등 본격적인 『One-Stop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추세에 국내 금융권의 은행과 보험사간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는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라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금융 위기 이후 국내에 새롭게 선을 보이고 있는 방카슈랑스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고, 2003년 8월 본격적인 방카슈랑스 도입과 관련한 국내 금융권의 대응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방카슈랑스 개요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란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을 합성한 프랑스어로 더 넓게는 보험뿐만 아니라, 증권·투자신탁 등 동종·이종 금융업계간의 제휴를 말한다. 방카슈랑스가 은행의 보험업 영위라면, 이와는 상반된 개념으로 보험사의 은행업 영위를 어슈어뱅크(Assurbanking)으로 부르고 있으며, 어슈어뱅크는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유럽지역에서 일부 행해지고 있다.

방카슈랑스는 80년대 중반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오늘날 프랑스에서는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가 전체 생명보험 시장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방카슈랑스의 최초 출현은 1986년 프랑스 아그리콜 은행이 프레디카 생명보험사를 자회사로 설립, 은행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부터이다. 그 이후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금융업종간 경계가 느슨한 유럽지역에서 유행하다가 최근에는 전세계 금융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97년 주택은행과 한국생명이 방카슈랑스 상품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단체신용 생명보험」을 출시한 적이 있으며, 현재는 2003년 8월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방카슈랑스를 앞두고 은행과 보험사들이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는 은행과 보험사가 상호 제휴와 업무협력을 통해 종합금융서

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결합 형태이며, 전 세계적인 금융검토편 추세에 부응하고 업무다각화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는 한편, 개인과 기업에게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방카슈랑스와 관련한 은행과 보험사의 업무 제휴는 다음 네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고객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은행상품과 보험상품을 선택할 경우(예: 노후보장 저축) 공동으로 상품을 서비스하는 것, 둘째는 은행상품과 보험상품을 결합(예: 무사고운전 우대적금 가입 고객에게 교통상해 보험증권을 제공)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 셋째는 은행상품과 보험상품을 공동의 유통체계에 의하여 판매하는 것, 넷째는 은행과 보험사가 한 지붕 아래에서 공동으로 상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방카슈랑스는 은행과 보험업의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데 그 이점이 있으며, 방카슈랑스의 도입이 국내 금융시장과, 은행산업,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방카슈랑스 도입 영향〉

구 분	영 향
금융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산업 패러다임의 전환 - 이업종간의 제휴 및 인적교류 확산 - 금융기관의 비효율성 증진 - 소비자의 편의성 증진 및 다양한 금융 니즈 충족 - 대형 외국계 금융기관의 영향력 증대
은행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은행과 중소형 은행간의 양극화 현상 심화 - 가계금융시장의 중요성 증대 - 금융 산업 내에서 은행의 영향력 강화 - 은행 중심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가속화 - 업무다각화를 통한 수익성 및 비용효율성 증대
보험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적인 보험산업 구조조정 가능성 증대 - 국내 은행에 자본을 참여하고 있는 외국보험사에게 기회요인 - 중소형 보험사에게는 위협요인인 동시에 기회요인 - 방카슈랑스 전문보험사 출현 가능성 - 전통모집 채널 위주의 대형보험사에게 위협요인

■ 국내 금융권의 대응현황

앞서 간단히 언급하였듯이, 국내 금융권은 2003년 8월부터 시행될 방카슈랑스 제도와 관련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삼성, 교보, 대한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의 은행과의 제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은행, 신한금융지주회사, 하나은행 등은 방카슈랑스에 대비하여 이미 외국계 보험사와 포괄적 제휴를 체결하는 등 상품개발과 직원교육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삼성생명은 우리은행과의 제휴를 준비중이며, 교보생명은 한미은행과, 대한생명은 우리은행과 제휴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삼성생명은 대구은행의 대주주인 관계로 가장 먼저 대구은행과 업무제휴를 체결하였으며, 현재는 여러 시중은행과 제휴를 추진 중에 있다. 교보생명은 조흥은행과 제휴를 추진하려 했으나 매각문제로 결렬됐으며, 현재는 한미은행과 물밑접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대한생명은 제일은행과 제휴를 추진했으나 한화그룹으로 인수됨에 따라 주 채권은행이자 우호적 관계에 있는 우리은행과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신한금융지주회사는 BNP파리바그룹의 자회사인 카디프생명보험과 공동출자를 통해 방카슈랑스 전문회사인 SH&C생명보험을 설립하기로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보험업 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국민은행은 최근 외국인 출자자인 ING보험사로부터 2% 추가출자를 받는 조건으로 이 회사의 보험 상품을 독점 판매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하나은행은 해외주주인 알리안츠와 공동으로 프랑스생명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금융그룹은 합작 파트너 후보를 미국계 AIG, 영국계 PCA, 시그나, 삼성생명 등 4개사로 압축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금융권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방카슈랑스의 허용범위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나 규칙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은행간, 은행과 보험사간, 혹은 보험사간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금융회사들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방침과 무관하게 은행과 보험사간의 합작 자회사 설립, 배타적 제휴, 일반 판매제휴 등을 통해 방카슈랑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 시사점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금융권에 도입될 방카슈랑스 제도는 정부와 은행, 보험사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가운데 금융권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특히 은행권에서의 방카슈랑스는 기존의 점포망을 이용한 상품판매가 가능하므로, 보험사의 전국적인 영업망 형성에 필요한 자금 및 인력의 절감이 가능하여 보험사에 비해 비용측면에서의 경쟁력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은행업과 보험업을 겸업함으로써, 고정자산의 비중이 줄어들어 자산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얻을 수 있고, 은행상품과 연계된 복합신상품의 개발을 통하여 『One-Stop 금융』을 지향하는 고객의 편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방카슈랑스는 궁극적으로 보험사보다는 은행권에 유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부 보험사들도 그 규모에 따라 각자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는 있으나, 방카슈랑스를 수익창출의 한 방편으로 삼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여하튼 국내 금융권의 방카슈랑스의 도입은 금융구조조정 마무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지며, 금융기관간 업무장벽 붕괴라는 불가피한 세계적인 추세라 할 수 있다. 

대구경북 벤처기업 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김남주 | (사)아이티커뮤니티 회장

미국 경제의 불안과 대(對)이라크전쟁 여부, 북한 핵문제 등 수출환경이 불투명해지고, 석유·화학·철강·기계·조선·자동차·전자·반도체 등 주력 업종의 BSI(경기실사지수)가 모두 100을 밑돌며 험난한 출발을 예고하고 있는 2003년 한국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길은 기술을 이용한 전략뿐만 아니라 생각이 든다. 그 중에서도 그 동안 황금알로 인식되기도 했던 벤처산업의 새로운 변혁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지방 소재 벤처기업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보·기술 교류와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각종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수도권 벤처들과 차별화 되는 영역을 가져야 한다는 움직임과 함께 수도권 지역과 대비되는 사업환경 구축 등 지방이라는 특성이 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공동의식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우리 지역 역시 그러한 지방벤처기업의 공동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으로 손꼽힌다. 그러한 활동의 시발점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벤처기업 단체들 중 (사)아이티커뮤니티와 (사)대구경북벤처기업협회를 중심으로 한 각 벤처모임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출범시키려 하는 움직임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공동체 출범에 대한 의지는 지난 해 11월 제2회 첨단벤처기업인대회에서 제기되어 (사)아이티커뮤니티와 (사)대구경북벤처기업협회의 지도부가 진지하게 논의한 끝에 이루어졌다. 대구·

경북 지역에 첨단 분야의 벤처기업과 관련한 단체가 난립해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향후 변화하는 기업 외부 환경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각 단체가 통합하여 보다 나은 기업 교류 환경을 만들어 내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지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단체들은 올해 초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동체 구성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수렴하였고, 그 결과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지역 벤처기업에 공동체 발기 협조 공문 발송과 함께 오는 2월 중 공동체 구성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대구·경북 지역에 첨단 분야의 벤처기업 관련 단체 수가 너무 많아 지역의 영세 벤처기업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고, 정부 당국 등 유관기관에 공통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여 실질적인 지원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대구·경북에도 혁신 기술을 갖춘 많은 벤처기업들이 사업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육성할 만한 시책이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모든 사업에 비해 치명적인 정보 부족 등으로 제대로 날개를 펴지 못하는 기업들이 상당수이다. 또한 인력들의 지방기업 회피, 벤처캐피탈 등의 탈지방화 현상으로 이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공동체 구성은 지역에 분산된 각 협회의

공동체 출범을 통하여 먼저, 혁신 기술을 갖춘 지방벤처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벤처기업인들은 업체별 사업 기술 엔지니어를 망라하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서울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기술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또한 지방벤처기업에 도움이 되는 자금 및 세제지원 등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업체간 네트워크를 통해 경쟁력과 핵심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공동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힘을 하나로 모아 벤처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공동체 구성에 대해 벤처기업인들은 지역 벤처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그 동안 분산되어온 각 협회의 힘을 하나로 집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벤처기업인 단체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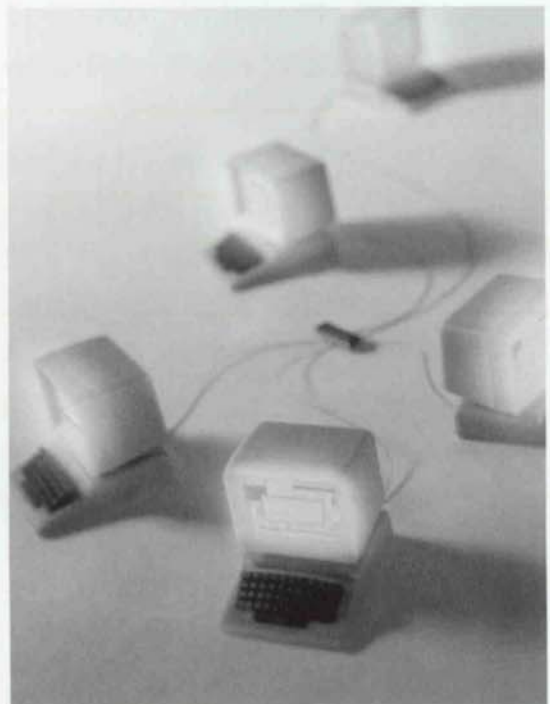
공동체 출범을 통하여 먼저, 혁신 기술을 갖춘 지방벤처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벤처기업인들은 업체별 사업 기술 엔지니어를 망라하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서울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기술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또한 지방벤처기업에 도움이 되는 자금 및 세제지원 등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업체간 네트워크를 통해 경쟁력과 핵심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공동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벤처 문화의 창출과 더불어 업계 공동 발전을 위해 올 5월 대구벤처대전을 대규모로 개최하는 한편 벤처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동 취업박람회, 해외 진출 등을 위한 공동 마케팅 활동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업들이 추진될 계획이다.

한편, 지난 한 해 벤처 기업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규모가 높아졌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성장률과 수출 규모 등에서 꾸준히 30% 가량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전통 주력 산업의 수출증가율보다 월등히 상회하는 등 여전히 우리 경제의 성장 원동력이 되

고 있다는 점을 정부나 지방관련단체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새로이 출범하는 지방벤처기업공동체의 의견을 정책 수립에 적극 수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위와 같이 이번 지방벤처기업공동체 출범은 벤처기업들의 3대 애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인력난, 자금난, 판매난을 해소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며 이와 더불어 각 기업들이 가진 핵심 역량을 조합하여 상호 win-win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벤처기업인 단체가 될 것이다. ❖



벤처기업들의 연합



권용범 | (사)대구·경북벤처기업협회장

대구·경북지방의 벤처기업들이 지난 2000년 6월 (사)벤처기업 대구·경북지역협회를 창립했다. 회원들은 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들을 중심으로 하여, 벤처기업 대구·경북지역협회의 성격을 띄면서 출범을 했다. 단지 벤처기업 대구·경북지역협회의 출범을 계기로 벤처기업들의 중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대구·경북벤처기업협회는 (재)대구테크노파크와의 협의를 거쳐 공동행사인 사랑방 모임을 개최하여 벤처기업들에게 정보 및 기업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협동적인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산학경영기술연구원과는 행사를 서로 연계하여 참여를 유도시키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대통령의 탄생과 때를 맞춰 벤처기업들의 발걸음도 더욱 바빠졌으며 지역의 의지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서로 단합하자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다. 그것이 표출되어 등장한 것이 바로 지난 2002년 11월 23일에 열렸던 제2회 첨단기업인대회였다. 지금까지는 (사)IT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이 대회가 대구테크노파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제부터는 IT 커뮤니티와 대구·경북벤처기업협회가 하나로 뭉쳐서 연 첫 대회였으며 그 성과는 실로 대단하였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벤처연합회의 탄생을 축하하는 전주곡이었다.

지역벤처기업의 현황을 소개하자면, 벤처기업의 수는 2002년 11월말을 기준으로 대구·경북이 544개로 전체

의 6%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정보처리 S/W 업체는 67개로 12%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기계·금속분야의 벤처기업은 36.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표면적인 수치와 더불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여러 단체의 난립으로 오히려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다는 지적이 내·외적으로 있었다. 이것이 이번의 '첨단벤처기업연합회'라는 새로운 구상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늘 주장하는 바이지만 산·학·연·관이 하나가 되어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기업들을 육성·지원한다면 대구경북의 미래가 결코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또한 첨단산업단지라는 제3차 성서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의 지난 해 매출액이 2,000억을 넘는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주목된다. 따라서 향후 진행될 제4차 성서산업단지의 조성에서도 벤처기업 및 첨단기업들의 영향은 매우 크리라 생각한다.

이제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고 또한 이를 지원하는 (재)대구테크노파크, (재)경북테크노파크 및 (재)포항테크노파크, (재)구미테크노파크가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과 향후 4년 뒤에 완공될 디자인센터를 비롯한 지원기관, 각 대학의 연구소와 같은 다른 많은 기관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지역기업을 키우는 이 역사적인 사업에 하나된 첨단벤처기업연합회는 심혈과 정성을 다할 것이다. 또한 이는 산업체 및 대학 그리고 연구소 및 관청들과 함께 대구경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게 할 열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엄숙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심(私心)을 버리고 모두 같이 함께 가야 산다는 그런 정신적 무장을 요구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관과 첨단기업인을 엮을 수 있는 시스템이 문제인 것이다. 그 역할을 첨단벤처기업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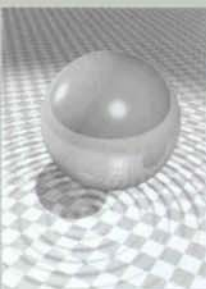
이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운동에 벤처기업인 뿐만 아니라 지역민 모두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향후 진행될 IT커뮤니티와 벤처기업협회 및 관련 여러 단체들의 연합화 노력에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하나의 대안으로 남은 지역기업을 키우는 이 역사적인 사업에 하나된 첨단벤처기업연합회는 심혈과 정성을 다할 것이다. 또한 이는 산업체 및 대학 그리고 연구소 및 관청들과 함께 대구경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게 할 열의

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엄숙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심(私心)을 버리고 모두 같이 함께 가야 산다는 그런 정신적 무장을 요구한다.

대학도 이제는 산업발전을 함께 하는 동반자로서 더욱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대학의 발전방향도 시와 도의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해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또한 이를 주체적이고 중심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네트워킹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환경을 시스템화하고 나아가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win-win의 전략이 바로 이러한 협동화라고 생각한다. 🍀





제 152 차 월 레 세 미 나

출향인사가 본 대구·경북의 발전방향



김용섭 | 레고코리아(주) 회장



편집자 주: 지난 2002년 12월 12일(목) 동대구관광호텔 별관 3층 대봉홀에서 개최된 본원 「제152차 월레세미나」의 발표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출향인사가 본 대구·경북의 발전방향

SEMINAR

■ 실패학(失敗學)

1. 실패학의 정의

- 실패 사례를 기록,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실패를 극복하고 실패를 새로운 성공의 토대로 삼으려는 것
- 실패를 또 다른 실패의 근원(실패의 확대 재생산)으로 만들지 않기 위한 대책

2. 실패학의 취지

- 부정적인 이미지가 따라붙는 실패를 꺼리지 않고 직시함으로써 실패를 새로운 창조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켜 활용하는 것

3. 실패학의 구성요소

- 사람을 성장(혹은 퇴보)시키는 실패의 감정에 대한 대처
- 새로운 출발의 기반이 되는 실패지식의 정리
- 성공의 토대가 되는 창조적 사고 기법의 훈련

4. 좋은 실패와 나쁜 실패

- 에디슨 실패
 - 받아드릴 수 있는 실패
 - 성공의 가교 역할을 하는 좋은 실패
 - 실패로부터 탁월한 창조와 성공의 가능성을 찾음
- 토끼의 실패
 - 받아드릴 수 없는 실패
 - 보탬은 되지 않고 좌절감만 남기는 나쁜 실패
 - 권력형 실패 : 나쁜 조직, 나쁜 사회시스템으로 인한 실패로, 대체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책임 있는 경우

5. 실패에 대응하는 태도

- 한국
 - 단죄의 대상
 - 회사 강의, 좋은 얘기만 해야 하는 압박감
 - 불같이 와글와글, 단죄하고, 망각하는 경향
 - 실패친화도(失敗親和度)가 낮은 나라
- 미국
 - 철저한 기록과 분석(에디슨적 실패 추구)
 - 사례 : 닉 리슨(파생상품으로 영국 베어링 은행을 파산시킨 인물을 영화화)
 - 실패친화도(失敗親和度)가 높은 나라
- 일본
 - 한국과 정서적으로 대동소이
 - 60년대 이후 대형 참사에서 '안전대국 일본'이라는 별칭을 만들어 냄
 - 실패학 연구 활발

6. 실패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진정한 창조와 발전을 기약

- 인생은 80%의 실패와 20%의 성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의 성공은 80%의 실패에서 얻어짐
- 실패는 새로운 창조의 씨앗이 되는 귀중한 체험
- 실패에 대한 태도는 그 사회가 얼마나 성숙 했느냐, 얼마나 민주화 되었느냐를 보여주는 척도

■ 실패학(失敗學)의 관점에서 본 대우

1. 대우붕괴

- 대우붕괴로 인한 손실
 - 투자자와 은행에 끼친 손실



- 대국적 건지의 손실
- '경영혁명' 과 '토키의 실패'

■ 대우가 대구 · 경북에 시사하는 점

1. 출향인이 본 대구 · 경북

- 10년 전 대구 · 경북에 대한 출향인의 인상과 평가
- 대경지역대학생의 표현력 부족에 대한 의견 (매일신문 칼럼)
- 삼성자동차 대구 유치에 대한 의견(영남일보 시론)
- 반응에 대한 개인적 견해
 - 산학경영기술연구원의 150여 회에 걸친 세미나의 효과와 기여도에 대한 의문
 - 강한 보수성과 배타성

2. 현재 대구 · 경북의 위상

- 대구시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하다?
- 주요 시도별 GRDP
 - 서울(1) - 부산(5) - 울산(7) - 인천(8) - 대구(11)
 - 대전(14) - 광주(15)
- 1인당 GRDP
 - 울산(1) - 대구(16)
- 소비와 관련된 통계
 - 1인당 민간소비지출(2000년) : 3위
 - 7대 도시 대형주택비율(전국평균 : 10.5%)
 - 대구(18.4%) - 서울(16.2%) - 부산(14.6%) - 광주(12.3%) - 대전(10.1%)

3. 대경인(大慶人)의 위상

- 일반적인 이미지
- TK라는 Nickname의 이미지
- 미래의 위상

■ 세계화가 대구 · 경북에 미치는 영향

1. 대구의 세계화 지수

- 뉴욕 vs 서울
- 서울 vs 대구
- 뉴욕 vs 대구

2. 세계화가 대구 · 경북에 미치는 영향

- Michael Jordan vs Joe Kleine
- 2002 PGA Statistics

Names	Money	Driving	Driving	Greens in	Putting
	Leader	Distance	Accuracy	Regulation	Average
	단위 : 천불	(Avg.)	(%)	(%)	
Tiger Woods	6,912(1)	293.3(6)	67.5(107)	74.0(1)	1,766(83)
Phil Michelson	4,311(2)	288.8(25)	66.3(129)	67.6(46)	1,717(5)
Vijay Singh	3,750(3)	285.6(46)	67.8(96)	70.6(7)	1,751(35)
Ernie Els	3,291(5)	281.4(84)	64.0(162)	64.4(134)	1,751(35)
John Daly	594(112)	306.8(1)	58.3(195)	60.4(195)	1,747(31)
Fred Funk	2,363(13)	273.0(163)	81.2(1)	71.1(5)	1,742(25)
Bob Heintz	127(192)	284.2(54)	50.4(202)	57.0(202)	1,682(1)
K.J. Choi	2,202(17)	283.1(62)	65.2(146)	65.5(103)	1,738(20)

■ 대구 · 경북의 발전을 위한 소견

- 1. 지역발전을 위한 '티핑 포인트적' 구심체를 구성
 - 권위가 수반되는 위원회 구성

SEMINAR

- 개인의 이해와 무관한 중립적 인사
- 높은 애향심
- 다양한 경험, 높은 식견과 통찰력
- 우에스키 요잔(요네자와 번주(藩主)의 비전과 카리스마)
- 잠룡 전 방콕시장의 모범과 희생

2 대구·경북의 통합

- '티핑 포인트위원회'가 구심체 역할
- 행정적 장애를 뛰어넘는 EU적 통합

3 지역특화 산업의 개발과 육성

4 인재 공급중심

- 대학의 구조조정
- 영재의 발굴과 육성

■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

1. 티핑(Tipping)의 정의

- (사전)균형을 깨뜨리는 것
- 균형이 무너지고 균형을 유지하던 두 세력 중 한 세력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

2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의 정의

- 평범한 저기압성 대기 불안정 상태가 무시무시한 캔사스 평원의 회오리 바람으로 변하는 폭발의 지점
- 평형을 깨뜨리는 힘의 작용이 분명해 지는 지점

3. 사회적 개념의 티핑 포인트

- 작은 일에서 시작된 현상이 갑작스럽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옴
- 특징
 - 전염성
 - 작은 것이 큰 결과를 초래
 - 변화가 어느 순간에 극적으로 발생

4. 세 가지 규칙

- 소수의 법칙
- 고착성 요소
- 상황의 힘 🍀



나 자신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김재구 | 성덕대학 기획실장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말은 「나」라는 말입니다. 나처럼 중요한 말이 없고, 나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온 천하를 다 준다해도 나의 생명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 자신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저는 4가지의 근본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애기(愛己)요, 둘째는 극기(克己)요, 셋째는 수기(修己)요, 넷째는 성기(成己)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 애(愛)와 극(克)과 수(修)와 성(成)의 자세를 반드시 지녀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애기(愛己)란 무엇인가? 나의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애기(愛己)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생명입니까?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서 오늘의 나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열을 쏟았고,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에게 대해서 얼마나 많은 희망을 가지며,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부처님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의 가슴 속에는 부모의 위치가 높거나 낮거나, 학문의 위치가 높거나 낮거나, 명예가 높거나 낮거나, 가진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언제나 어디서나 자식의 건강과 성공과 행복을 간절히 기원하는 아름다운 기도가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나를 낳아서 키워주고, 지켜주고, 아껴주는 부모를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현대인들은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고이 간직해야 합니다.

둘째는 극기(克己)입니다. 극기는 내가 내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나는 나하고 싸워서 나를 이겨야 합니다. 거짓된 자기, 교만한 자기, 어리석은 자기, 약한 자

기, 비겁한 자기, 게으른 자기, 이기적인 자기, 무책임한 자기, 무사안일한 자기, 허영심의 자기, 탐욕의 자기 이러한 자기는 마땅히 물리쳐야만 할 것입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이러한 자기와 항상 싸우고 이기는 것입니다. 일찍이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 최대의 승리는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이기는 것이 극기입니다. 나를 이기는 마음이 극기심이요, 나를 이기는 힘이 극기력이요, 나를 이기기 위한 피나는 훈련이 극기훈련입니다.

지혜와 신념과 용기와 인내력의 힘으로 마음의 자세를 올바르게 할 때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과 부단히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이기기전에 스스로를 이겨야 합니다. 극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인생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수기(修己)입니다.

내가 나를 깔고 닦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의 인격 수양에 힘쓰야 합니다. 나의 존재를 굳세게 하고, 나의 마음을 맑게 하고, 나의 정신을 올바르게 하고, 나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나의 인격을 착하게 하고, 나의 자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수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독서하고, 사색하고, 명상에 잠기고, 아름다운 물소리, 음악소리를 듣고, 부모 형제, 직장 동료, 선후배, 스승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마음의 발을 풍성하게 갈아야 합니다.

우리는 맑은 마음, 겸허한 마음, 착한 마음, 온유한 마음의 소유자가 될 때 진정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양하는 마음의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기(成己)입니다.

성기는 자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나의 내부에는 놀라운 잠재력이 잠자고 있습니다. 각자의 마음, 가슴속에 잠자고 있는 천재를 깨우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최고로 개발하여 최고로 발휘하는 것이 나의 의무요, 책임입니다.

산다는 것은 최고의 자아를 표현하고 최고의 자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저마다의 자기 노래를 부르고, 제 빛을 나타내고, 제 향기를 풍기고, 제 특색을 발휘하고, 제 장기를 십분 발휘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기고, 나를 닦고, 나를 완성해야만 합니다.

희망찬 계미년 새해 전교직원과 팔공산 동봉을 올라 애기(愛己)와 극기(克己)와 수기(修己)와 성기(成己)를 다짐하면서 이것이 자아에 대한 나의 의무요, 책임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

연구원 소식



제152차 월례세미나 개최

지난 12월 12일(목) 18:00~20:00까지 동대구관광호텔 별관 3층 대봉홀에서 「출향인사가 본 대구·경북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제152차 월례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용섭 레고코리아(주) 회장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제127차 이토회 개최

지난 1월 11일(토) 오후 3시 앞산 심신수련장에서 제127차 이토회를 가졌다.

※ 2002년도 이토회 최다 참여자

1. 이선동 한민족연구회 회장
2. 정인상 경북대학교 금속공학과 교수
3. 김주환 (주)바이오세텍 대표이사

영구회원 가입에 감사드립니다



■ 이승익

- TBC 대구방송 보도국 차장
- 생년월일 : 1961. 8. 14
- 주소 :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201-9
- TEL : 053)760-2012



■ 정건용

- 한국산업은행 총재
- 생년월일 : 1947. 8. 1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 TEL : 02)787-6001

신입회원을 환영합니다



■ 정중부

- (사)한국산학협동연구원 기획관리본부장 /신임연구위원
- 생년월일 : 1942. 2. 28
- 주소 : 광주시 북구 두암동 859-11
- TEL : 062)269-3400



회원동정



■ 노희찬(본원 고문)

노희찬 본원 고문(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12월 23일 대구상의 응접실에서 중국 선양시 국제사회 리화니엔 회장 일행을 접견하고 양 지역간 우호증진 및 경제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해 협의



■ 최용호(본원 상임고문)

최용호 본원 상임고문(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은 12월 5일 윤경건 강대학에서 '노후의 경제생활'에 대해 특강

- 6일 경북대 지방자치연구소가 주최한 '지방자치의 평가와 발전과제' 학술세미나에서 사회
- 12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제81회 정기운영위원회 참석
- 13일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의 「대구장기발전계획(안) - 대구비전 2020」 자문회의에서 의견 제시
- 20일 대구지방공정거래협의회 회의의 주제
- 21일 경상북도 여성단체협의회 간부를 대상으로 '경제환경변화와 여성의 역할'에 대해 특강
- 26일 중소기업청의 금융지원위원회 참석
- 27일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의 「제73회 이사회」에 참석



■ 구정모(본원 부이사장)

구정모 본원 부이사장((주)대구백화점 대표이사)은 12월 20일 대백프라자 정문에서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전 호영 회장)와 「1% 나눔운동 사랑 릴레이」 현판식을 가지고, 1차로 960만원을 전달

- 1월 15일 대구 범물복지관 강당에서 지난해 12월 「이웃돕기 사랑의 저금통행사」를 통해 모금한 성금 349만원을 월드비전 대구경북지부에 전달



■ 김규택

김규택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경실련, 중앙일보가 공동 주관한 「2002 전국 도시 평가」에서 친환경부문 대상기관으로 선

정, 12월 27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표창을 받음



■ 김극년

김극년 대구은행장은 12월 27일 경남 마산에서 6개 지방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방은행협의회」에 참석해 지역 금융현안 등을 논의



■ 김동구

김동구 (주)금복주 대표이사는 12월 31일 소외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20kg짜리 쌀 100포대를 경주시장에게 기탁



■ 김성경

김성경 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 사무차장은 12월 31일 복지시설인 경주시 외동읍 죽동리 '한마음의 집'을 방문, 직원들의 성금 50만원으로 마련한 생필품을 전달



■ 김숙희

김숙희 (주)삼성금속 대표이사는 12월 27일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이 개최한 2002년 4분기 「모범중소기업·우수기술인 시상식」에서 수상



■ 김재근

김재근 계명문화대학 식품과학과 교수는 12월 1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대학식품영양관련학과 교수협의회 주최로 개최된 「사상체질과 시기요법」이란 주제의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 참석, 2003년도 상기협회 대구·경북지부장으로 선출

- 12월 31일~1월 1일 포항 호미곶 해맞이광장에서 개최된 「제3회 한민족 해맞이축전 2003」에서 참가자들에게 (주)윤



회원동정

재호 베이커리와 산학공동으로 개발, 특허 출원한 누에당노 빵과 부추키토산빵을 무료제공 및 첫선을 보임



■ 김주훈

김주훈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은 12월 20일 '경제지표의 이해와 해설', '2003년도 경제전망'을 주제로 2002년도 제2차 경제교실 개최



■ 김형태

김형태 (주)씨티렌트카 대표이사 사무실 이전
• 주소 : 대구시 동구 지저동 668-7
• 전화 : 053)954-0101
• 팩스 : 053)944-1016



■ 김호영

김호영 (주)브레안폴 대표이사 사무실 이전
• 주소 : 대구시 남구 대명9동 336-4(영우빌딩 4F)
• 전화 : 053)627-3400 • 팩스 : 053)651-1771



■ 박규진

박규진 (주)애드밸리 대표이사 사무실 이전
• 주소 : 대구시 수성구 수성4가 1014-22
• 전화 : 053)744-4949 • 팩스 : 053)744-4950



■ 박명호

박명호 계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1월 4일~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8차 국제마케팅개발회의」에서 논문 발표



■ 박성수

박성수 (사)한국산학협동연구원장(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은 1월 16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연구원 개원기념 제1회 산학협동 포럼」을 개최하였고,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의 '산학협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 신강식

신강식 공인회계사 사무실 이전
• 주소 : 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 167-15(박노선산부인과의원 2층)
• 전화 : 053)742-8866
• 팩스 : 053)742-0684



■ 심상철

심상철 경북대학교 공업화학과 교수는 1월 1일 대한화학회 제37대 회장으로 취임
• 22일 한국산업기술재단 CEO선발 심의 위원회 참석
• 24일 대한화학회 이사회 주제
• 27일 한국기술센터 15층에서 개최된 한국공학한림원 「신년하례식 및 CEO포럼」 참석



■ 이인중

이인중 화성산업(주)동아백화점 회장(고려대학교 교수회 대구지부 회장)은 12월 27일 매일신문사를 방문, 고려대학교 교수회 대구지부 100만원, 화성산업(주)동아백화점 임직원 일동 1천21만7천40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
• 26일 정보통신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기업정보화를 위해 제정한 '디지털 지식경영 대상' 인증업체로 뽑혀 인증패를 받음



회원동정



■ 이 훈

이훈 (주)e-SIS 대표이사는 현대자동차(주) 소재금형기술부와 "금형목표공수관리 시스템" 개발 착수
 • (주)삼성산업과 EA(Enterprise Agreement) 계약 체결



■ 조 만 현

조만현 동우씨엠(주) 대표이사는 11월 1일 메트로팰레스, 고려파크뷰 직무교육시 전문 외래강사를 초빙, 입주민 친절서비스 및 보안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6대 실천과제 등 2003 품질경영 선언
 • 12월 26일 롯데 메트로팰레스 1, 2단지 관리 사무소를 개소하여 타워 펠리스 아파트 운영시스템을 도입, 선진화된 관리행정 시도
 • 30일 화성 고려파크뷰 관리 사무소 개소



■ 조 명 희

조명희 경일대학교 도시정보지적공학과 교수(공간정보시스템연구센터 소장)는 2003년 2월 초에 GIS(지리정보시스템), GPS(위치추적시스템), 위성영상정보시스템 등의 공간정보기술을 이용한 응용시스템 개발 및 컨설팅을 주사업내용으로 하는 (주)Geo C&I (Geographic Consulting and Information)라는 벤처회사를 설립, 경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예정



■ 조 재 룡

조재룡 (주)한국중소기업컨설팅 대표는 중소기업청에 싱글PPM인증심사원으로 위촉
 • (주)중소기업인증센터 3S시스템 상담전문위원 위촉
 • 중소기업청지원 PL컨설팅, PL사내교육 성황리 완료 (엔유씨전자 외 11개업체)



■ 진 임 근

진임근 (주)미래경영기술연구원장은 1월 21일 대구파크호텔에서 최고경영자세미나를 개최하여 최고경영자의 품질마인드 및 경영의지의 중요성과 효율적인 시스템 유지를 위한 방법을 설명했다. 아울러 2002년도 ISO900 및 QS-900 품질경영시스템을 모범적으로 유지시키고 있는 우수업체((주)삼우, 한국파스너(주), 태광볼트산업사, 청구개발(주))에 대한 상패를 수여하였으며, HSB-RS 인증원의 후원 하에 ISO 900 인증업체인 (주)건성, (주)윤성정기, 그리고 QS-900 인증업체인 대한세침공업사, (주)우진산업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
 • 기술/경영컨설팅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ISO9001(2000)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
 • 포항테크노파크 경영지원단(기술지도부문) 자문위원으로 위촉



【 신착도서목록 】

단행본 및 연구보고서

- 세계경제연구원 · 한국무역협회, "미국 경제, 달러 및 대외 통상정책 방향", 2002. 12. 4
- 세계경제연구원 · (주)코스닥증권시장, "미국의 IT산업 관련정책과 한국", 2002. 12. 30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의 글로벌마케팅 성공사례", 2002. 12
- 중소기업진흥공단, "투자에 대한 경제성 평가 가이드", 2002. 12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의 외환위험 관리전략", 2002. 12
-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의 소비자금융업 진출", 2002. 12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신제품 개발 및 상품기획 전문교육 실무교재", 2002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大邱地域 眼鏡産業의 現況과 課題", 2002. 12

정기간행물

- 구미상공회의소, "구미상", 2002. 11 · 12
- 대구경북건축물공업협동조합, "섬유직물 소식", 2003. 1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달서", 2003. 1
- 대구상공회의소, "대구 · 경북 경제동향", 2002. 11
-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DYETEC VISION", 2002. 11 · 12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도시문제", 2003. 1
- 바른경제동인회, "바른경제", 2002. 12
- 산학연종합센터, "산학정21", 2003. 1. 5
- 신용보증기금, "보증월보", 2002. 12
- 열린전북, "열린전북", 2003. 1
- 좋은 이웃집, "경제풍월", 2003. 1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나라", 2003. 1
- 한국금융연구원, "金融動向 分析과 展望", 2002. 가을
- 한국무역협회, "무역", 2003. 1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기협 기술관리", 2003. 1
- 한국산업인력공단/노동부, "직업훈련뉴스", 2002. 12
- 한국산업정보센터, "레이저기술", 2003. 1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섬유개발연구", 2002. 11 · 12
- 한국수출입은행, "수은 해외경제", 2003. 1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구 · 경북지역 경제동향", 2002. 11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02. 12

연구원 소개 및 회원가입 안내

■ 연혁 및 현황

1990년 6월 지역의 학계 교수, 기업체 경영자, 기관 단체장이 산학협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일조하자는 순수한 취지로 산업자원부의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창립하였으며, 현재 47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사장 : 오순택 동일산업(주) 대표이사
- 원장 : 최만기 계명대 교수

■ 주요사업

- 산학협동 세미나 개최
- 산업시찰 실시
- 산학리뷰 발간
- 조사분석, 기술개발 연구
- 각종 개발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 수행
- 경영자 및 임직원의 교육훈련
- 회원친선 교류사업

■ 회원가입 자격 및 회비

- 학계회원 : 국내의 학계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입회비 5만원, 연회비 5만원)
- 업계회원 : 기업체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연회비 60만원)
- 유관기관회원 : 금융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 (연회비 60만원)
- 유관개인회원 :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임원으로 개인자격(입회비 5만원, 연회비 10만원)
- 영구회원 : 회비 일시납부 회원 (개인 100만원, 기관 1000만원)

■ 연구원 거래은행 계좌

- 대구은행 : 018 - 04 - 304943 - 001
- 예금주 : (사)산학경영기술연구원

- 본 연구원에 납부 또는 지원하시는 회비, 연구비 그리고 출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 1호에 의거, 지정 기부금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원고 및 광고게재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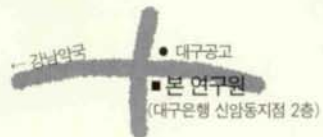
매월 3,000여 부를 제작·배포하는 본 산학리뷰지는 회원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적극적인 원고 기고 및 광고게재 협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 연구원 사무국 T. (053)959-28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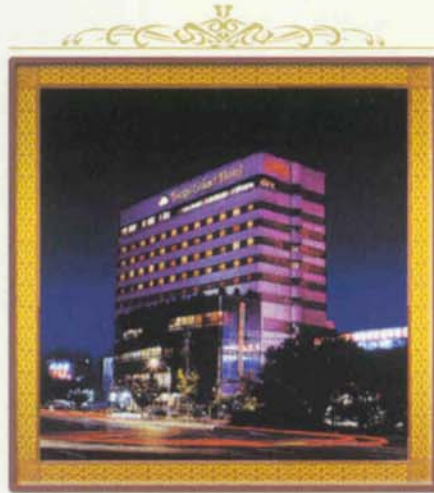
■ 2003년 1월호 (통권 141호)

- 간 별 : 월간
- 등록번호 : 대구리01089
- 등록일 : 1998년 6월 2일
- 발행소 : (사)산학경영기술연구원
- 발행일 : 2003년 1월 30일
- 발행인 : 최만기 (원장, 계명대 교수)
- 편집위원장 : 정인상 (경북대 교수)
한성덕 (대구대 교수)
- 편집위원 : 김능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구경북지원장)
김영재 (동국대 교수)
김용준 (영남이공대 교수)
박규진 ((주)에드밸리 대표이사)
박종달 (계명대학교 벤처창업보육사업단 연구위원)
박진향 ((주)멀티에드메이저 대표이사)
이동형 (영남법무법인 변호사)
황남성 (영남이공대 교수)
조정일 · 임재현 · 최영애(상임연구원)
- 기획·편집 : (주)멀티에드메이저(053-751-5005)
- ISSN 1228-811X



URI 産學經營技術研究院
UNIVERSITY-INDUSTRY RESEARCH INSTITUTE

701-814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3동 164-1번지
TEL. (053)959-2861~2 FAX. (053)959-2860
http://www.uri.or.kr
e-mail : uri@kornet.net



대구그랜드호텔

그이름이 곧 당신의 품격입니다

대구의 중심가에 위치, 초현대적 시설과 화려한 장식으로 대구 제일 규모를 자랑하는 그랜드호텔. 120개의 객실과 한식, 일식, 중식, 뷔페식당 그리고 남녀 사우나, 헬스클럽, 다이아몬드 직매장, 다목적 대·중·소 연회장들을 갖추고 최고 수준의 서비스와 요리를 제공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명문호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구 범어네거리 핵심위치! 동대구역에서 5분, 대구공항에서 15분!
관광과 비즈니스를 한 걸음에 - 대구그랜드호텔

대구그랜드호텔 예약문의 : (053)742-0001 www.taegugrand.co.kr